

‘취임 100일’ 최정우의 개혁안, 新포스코 향한 경영혁신

〈포스코 회장〉

5일 ‘포스코 개혁안’ 발표
신사업 구상·조직개편 등 예고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기대감
‘두 개의 노조’ 갈등 난제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100일(11월 3일)을 맞아 ‘포스코 개혁안’을 발표한다.

포스코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이 같은 성적은 최근 취임한 최정우 회장이 이끌어 냈다고 보기 힘들다.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이 사실상 최회장의 경영능력을 검증받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의 개혁안은 오는 5일 발표되며 포스코 신성장 사업 구상과 더불어 이에 따른 사업구조·조직개편, 주주환원정책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위드 포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코(With posco)’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고객·공급사·협력사·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 분쟁 속 본원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개혁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고객사 대응 강화,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을 검토 중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업구조 개편의 경우 대표적으로 포스코ESM과 포스코켐텍 등 양극재·음극재 관련 회사의 통합을 예고했다.

실제 최 회장은 지난 7월 27일 취임식에서 “양·음극재 사업 통합은 물론 리튬과 인조흑연 사업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재 분야 일류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회사간 통합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최 회장이 취임 당시 신성장 사업 부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정책이 포함될지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2월 1일 40만원까지 올라갔던 포스코 주가는 전날인 30일 장중 24만60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폐진 보호무역주의와 지난달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투자업계는 분석한다.

주가 부진 문제는 회사 측에서도 명확히 인지한 상태다. 포스코는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성과도 우리 계획보다 양호했고 장기 투자가들과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현금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배당 확대는 이 사회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 숫자가 나오긴 어려워 보이지만, 시장에선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가 언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 회장은 공식 취임 전부터 각계각층

으로부터 포스코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이 의견을 종합한 개혁 과제를 취임 100일 시점 때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개혁안은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사내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최 회장은 개혁안을 제사함과 동시에 노조와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포스코는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지속했으나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면서 두 개의 노조가 대치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3일 최 회장 등 임원 27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영진이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경영혁신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와의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쇄신안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토요타 프리우스 C.

고유가 시대 ‘가성비’ 궁 도심생활 ‘엄마차’로 제격



토요타코리아 ‘프리우스 C’

심플한 실내, 시야 확보 충분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없어
초보 운전자 주차땐 부담 작용

토요타코리아가 지난 3월 출시한 하이브리드차(HEV) ‘프리우스C’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프리우스C는 소형 해치백 모델로 국내 출시후 지난 9월까지 890대가 판매되며 연간 판매 목표로 잡은 800대를 넘어섰다.

‘해치백의 무덤’이라 불리는 국내 시장에서 프리우스C가 이처럼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강원도 정선을 왕복 주행하는 약 400km 구간에서 진행했으며 막히는 도심과 고속화도로, 구불구불한 시골길 등을 주행했다.

우선 시승을 진행하면서 디자인과 연비, 실내 공간 등을 고려한 결과 ‘도심 주행이 많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에게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디자인은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차량의 크기에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하게 구현된 유선형의 차체 형상은 젊고 활기찬 인상을 전달하며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전면 그릴과 하이브리드 엠블럼은 민첩하고 강인한 이미지와 함께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하이

브리드 차량임을 상징하고 있다. 실내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이 묻어난다. 덕분에 전방 시야 확보는 물론, 후·측방 시야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가 없어 주차시 초보 운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행성능은 1.5L 가솔린 엔진에 CVT 변속기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출력 101마력, 최대 토크 11.3kg·m의 힘을 낸다. 제원상 국산 경차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초반 가속은 만족스럽지 않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퍼포먼스 보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가는데 만족스러웠다. 다만 고속 도로에서 시속 140km를 넘길 경우 엔진 소음은 상당히 큰 편이다.

성인 남성 3명이 차량에 탑승했지만 연비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자 평균 21km/L를 기록했다. 특히 프리우스C는 고속도로보다 정체 구간이 많은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다.

서울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전기 차 모드가 자동해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연비가 25km/L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프리우스C 가격은 2490만원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과 정부 보조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브로드밴드, 10기가 인터넷 이달 상용화

서울, 인천, 수원 등 시범 서비스
국산용 10기가 랜카드 이달중 개발

SK브로드밴드가 11월 안으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10기가 인터넷 상용 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등 3개 아파트단지에서 국산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시작한 2.5기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0기가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책과제로 국내 기업과 함께 국산용 10기가 랜카드를 11월까지 개발, 검증을 통해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10기가 속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고가의 외산 랜카드를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다. 국산 랜카드가 개발되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10기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코엑스에서 기존대비 4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T와이파이 AX’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속도 4.8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silkn@

“AI 스피커로 음악퀴즈 푸세요”

LG유플러스

‘U+우리집AI’서 뮤직큐 제공

LG유플러스는 네이버 인공지능(AI) 플랫폼 클로바가 적용된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에서 음악퀴즈 서비스 ‘뮤직큐’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뮤직큐는 음악의 일부분을 짧게 들려주면, 사용자가 이를 듣고 가수명과 제목을 음성으로 맞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U+우리집AI를 지원하는 ‘프렌즈+’와 ‘프렌즈+ 미니’ 스피커에서 이용할 수 있다. U+우리집AI 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된다.

예를 들어 “클로바, 뮤직큐 시작해줘”



모델이 음악퀴즈 서비스인 ‘뮤직큐’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면 AI스피커가 이를 비교해 정답 여부를 알려준다. 또 짧은 곡을 듣다가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클로바 ‘노래제목’ 틀어줘”와 같이 음성 검색으로 전곡을 바로 감상할 수 있다.

뮤직큐는 국내 AI 서비스로는 최초로 소셜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실행하면, “대전 상대를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상대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오신 홍길동님입니다”와 같이 다른 사용자를 대전 상대로 매칭해 퀴즈 대결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출시를 기념해 뮤직큐 전적이 월간 순위 200위 이내를 기록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BHC 치킨 쿠폰 ▲지니뮤직 무제한 음악감상 월간 이용권 등 상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아프리카TV 3분기 영업익 74억… 전년비 52% ↑

아시안게임 독점 중계 효과
자회사 시너지 발휘 성과

아프리카TV는 31일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24억 원, 74억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와 52.1% 증가한 수치다.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12%, 21.4%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66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6%, 전 분기 대비 43.2%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아시안게임을 독점 중계하면서 트래픽이 상승하고,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과 더불어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점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은 “4분기 내 케이블TV·IPTV로 플랫폼 확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와 소셜 트레이딩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자회사를 통해 콘텐츠 개발 및 영상편집 사업을 추진하며, e스포츠 제반 사업들을 강화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